

부산체육 토크톡

September 2020 VOL.07

사람과 사람

강한 집중력과
평정심이 강점!
스페어 처리에
능한 볼러

부산광역시청 실업팀 소속
이완희 볼링선수



스포츠 센터 info

동계종목 전문 선수 육성,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돕다
공존의 터, 부산실내빙상장



GLOBAL GAME EXHIBITION
G-STAR 2020

스포츠 뉴스

- 지스타 온라인 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스포츠 톡 - 볼링



초보가 선수를 이기는 유일한 스포츠
가슴 땡 돌리는 스트라이크! 볼링

교육 톡 - 스포츠 관련 직업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사람과 사람



강한 집중력과 평정심이 강점! 스페어 처리에 능한 볼러 (Bow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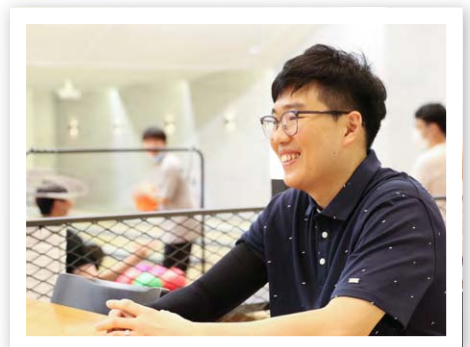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청 실업팀 소속
이완희 볼링선수

볼링을 취미로 둔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볼링장에 처음 가봤다. 힘껏 공을 굴려 마루 끝에 세워진 10개의 핀을 맞추는 경기 '볼링', 제대로 핀을 맞추자 짜릿하면서도 경쾌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일까. 볼링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볼링을 친 부산광역시청 실업팀 이완희 선수, 중견 볼링선수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볼링의 세계는 심오하다는 그를 만났다.

연습량은 곧 실력으로 몸에 배일 만큼 훈련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랜드배 어린이볼링왕 선발대회에서 50명 중 4등을 했어요. 처음 나간 대회치곤 성적이 괜찮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름 볼링에 꽤 소질이 있구나 싶어 볼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던 중 정체기였는지, 실력은 늘지도 않고 예전처럼 볼링이 재밌지도 않고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중3 무렵이었죠.” 외동이었던 이완희 선수를 묵묵하게 지원해주셨던 부모님은 아들의 고민을 듣고 코치 선생님을 붙여 주셨다. 1년간 량 전문가의 지도하에 볼링 실력을 다진 이 선수, 동성고등학교 볼링부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다. 4교시까지 수업을 받고 저녁 7시까지 훈련을 계속 이어갔다. 동성고등학교에서 볼링 체육특기생은 이 선수를 포함해 12명 정도, 청소년 대표는 그 혼자였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산동에 위치한 남산볼링장에서 연습한 기억이 납니다. 대여비는 한 달에 20~30만 원가량.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볼링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한 운동이에요. 몸에 익히는 반복적인 과정이 무척 중요하죠. 연습량이 곧 실력이 되는 거죠. 방학 때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볼링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볼링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링대회가 열렸다. 매 대회마다 빼놓지 않고 참가했다는 이 선수에게 지금껏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일까. 고3 때 참가한 대한볼링장협회장배에 개인전에서 6게임 1,509점을 얻어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일, 2002년 부산광역시청 실업팀에 입단한 후 처음 참가한 전국체육대회에서 마스터즈 부분 금메달을 딴 것. 제일 뜻깊은 기록을 낸 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대회로 꼽았다. 2002년 실업팀에 입단한 이 선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대를 다녀온 뒤 다시 실업팀에 합류,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청 실업팀을 대표하는 볼링선수로 활약 중이다.

“군대에 가기 전인 2005년에 또 한 번의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때 부모님과 실업팀의 이양재 감독님이 제 마음을 다잡아주셨죠. 따끔한 조언을 해주는 선배들과 지인 덕분에 볼링선수로서 한 길을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프로로 전향해 있는 김태영 선배는 제 롤모델이 돼 주셨죠. 올해 46세인데도 여전히 열정 넘치고 늘 배우는 자세에 겸손함이 몸에 배인 분이세요.”

사람과 사람



“매년 12명을 선발하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제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꼭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 선발, 오늘도 일보 전진

어느덧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4세, 6세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 남편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이 선수,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묵묵하고 성실하게 매 훈련에 임해왔다.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대회가 줄줄이 취소된 상황이지만 연습만큼은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온 그다. 그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물었다.

“매년 12명을 선발하는데 국가대표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볼링이 세계에서 최정상급인데, 특히 여자 선수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할 때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한 편이죠. 제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꼭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볼링은 처음에 배울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운 스포츠라고 말하는 이 선수, 볼링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 것. 멀리 내다보며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훈련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로라 할만한 성실함과 평정심을 무기로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고 그 다음 목표를 정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이완희 선수의 내일이 기대된다.



주요 경기 수상내역

- 제14회 대한볼링협회장배 개인전 금(한국신기록), 개인종합 금
- 제15회 대통령기볼링대회 개인종합 금, 마스터즈 금
-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마스터즈 금
- 제95회 전국체육대회 5인조 동, 마스터즈 동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3인조 은, 5인조 동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은, 2인조 동, 마스터즈 동
- 제3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 개인종합 금
- 제2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개인전 금, 3인조 금
- 2019 천안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인종합 은
- 제27, 제32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볼링대회 우승
- 1999년 청소년 국가대표
- 2004, 2014~2015, 2017 국가대표 상비군



스포츠센터 info



동계종목 전문 선수 육성,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돕다

공존의 터, 부산실내빙상장

빙상 불모지인 부산에서 국제 규격을 갖춘 실내빙상장 중 하나인 부산실내빙상장. 올해 9월 1일(화)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운영을 맡았다. 최적의 빙질과 우수한 강사진을 갖추고 역량 있는 선수들을 육성해온 부산실내빙상장, 그곳을 찾았다.



2025년 8월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맡기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92.39㎡ 규모에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락카룸 등을 주요 시설로 갖추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남구실내빙상장의 경우 주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지어졌다면 부산실내빙상장은 250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부산 북구청이 운영했지만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지난 3월 북구청은 부산광역시에 빙상장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6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심의한 결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과해 수탁·운영을 맡게 됐다. 이로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부산실내빙상장을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동계 스포츠 공간으로

부산의 아이스링크장을 대표하는 부산실내빙상장은 2005년 7월에 처음 문을 열었다. 부산의 관문인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인 덕천동에 위치, 부산 전역에서 접근이 쉬운 게 장점이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평일 300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얼음 위에서 스피드를 즐겼다. 오랜 경험 노하우로 평상시 빙질도 최상으로 관리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최첨단 정빙기를 들여와 더욱 양질의 빙질로 관리 중이다. 입장료는 3시간에 초등학생은 2천5백 원, 중고등학생 3천원, 성인 4천 원이다. 본인 스케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3천 원에 스케이트를 빌릴 수 있다. 월간 정기 강습의 경우 어린이 6만 원, 청소년 7만 원, 성인 8만 원에 강습을 겸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지난 8월 초 부산실내빙상장에 부임한 정석원 센터장에 따르면 부산실내빙상장 하루 유지비만 해도 인건비까지 포함해 2백~3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일단 빙상장의 얼음이 녹으면 다시 얼리는데 드는 비용만 5천만 원. 1년 365일 불이 켜진 기계실에는 3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핫 플레이스로 재도약하길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오래돼 빙상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운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빙상 종목은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석원 센터장은 향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세분화된 정기 강습 개발과 국책사업인 스포츠클럽을 유치해 빙상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 최초로 건립된 국제 규격의 빙상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적화가 된 운영체제와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 현재는 텅 비어 있는 빙상장에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로 발 디딜 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빙상장이 되길, 그야말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핫 플레이스가 되길, 열정과 활력, 에너지가 가득한 스포츠 공간이 되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부산실내빙상장 문턱이 닳도록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열린 스포츠 공간으로 다시 급부상하길 정석원 센터장은 간절히 바랐다.



스포츠 톡



초보가 선수를 이기는 유일한 스포츠 가슴 땀 흘리는 스트라이크! 볼링

전문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핀을 남김없이 쓰러뜨릴 때, 지켜보는 이들도 통쾌함을 느낀다. 볼링은 파괴 본능을 만족시키는 스포츠다. 하나의 볼로 열 개의 핀을 일순간에 쓰러뜨릴 때 맛보는 후련함, 스트라이크의 묘미를 맛보면 이미 볼링의 매력에 사로잡힌 것.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각광을 받아온 볼링의 세계, 들여다본다.



매력 만점 볼링이 지닌 특성 Five!



첫째, 볼링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스포츠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밀고, 당기고, 치고, 받고, 던지고, 차고, 때리는 등 근원적인 경향을 지녔다. 이러한 경향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볼링은 신체 활동을 통해 공을 던져 핀을 때리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볼링 초보자라 할지라도 종종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으니 그 기쁨은 배가 된다. 둘째, 볼링은 신사적인 스포츠다. 신체의 부딪침이나 심판의 권한에 의한 이해득실, 타인의 방해 없이 행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땀을 흘릴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셋째, 볼링은 사회성을 키워주는 스포츠다. 볼링장에 보통 친구와 연인, 가족 등과 함께 가는데 정다운 대화와 흥겨운 몸짓,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대감이 커진다. 팀을 이뤄 경기하는 동안 협동심과 단결력이 향상된다. 넷째, 볼링은 자기계발 스포츠다. 스텝의 크기와 스윙 속도의 완급, 정확한 릴리스 타이밍, 효과적인 리프팅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을 18m 앞에 있는 핀에 직접 던져 넘어뜨린다면 모르겠지만 나무판 위에 굴러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일정한 회전과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볼링은 운동량이 상당한 스포츠다. 볼링은 3게임을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의 방출량이 약 500kcal 정도. 특히 장소, 계절 그리고 도구 등의 많은 요인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기 쉽다는 점에서 볼링의 운동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볼링의 운동량과 비슷한 신체 활동으로 산책 80분, 축구 18분, 테니스 20분, 사이클 27분, 골프 18분, 조깅 15분, 야구 4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About 세부적인 볼링 용품



볼링공의 무게는 약 7.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둘레는 27inch(약 68.58cm)로 직경이 일정해야 한다. 또 공의 표면에는 어떤 이물질도 부착할 수 없고 볼의 경도는 72듀로미터(d-urometer) 이상의 딱딱한 정도를 가져야 한다. 재질은 내·외부 모두 금속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과거 공의 표면 재질은 경질고무, 내부는 코르크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합성수지를 이용한다. 볼링화는 볼링 스텝의 특성상 마지막 스텝은 발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이딩하는 발(오른손잡이의 경우 왼발)의 밑창은 가죽으로 돼 있고, 반대쪽 발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로 돼 있다. 무거운 중량의 공을 들고 신체적, 정신적 집중을 요하는 경기가 볼링이기 때문에 투구를 할 때 순간적인 힘과 함께 유산소적 지구력이 필요하다. 볼링을 계속 하다보면 건강 유지와 증진뿐만 아니라 근육계통의 발달, 지구성, 민첩성, 평형성 등도 증진·강화된다.



교육 톡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스포츠 관련학을 전공하려면 각종 운동 종목을 습득할 수 있는 운동 자질이 있어야 하며 훈련을 감당해낼 체력도 필요하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여가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급부상 중인 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을 들여다본다.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전문역량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시행하며 만18세 이상인 사람 응시 가능하다. 필기-실기 및 구술-연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필기시험 과목은 위처럼 7과목 중 5과목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이런 과목을 통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및 구술면접이 이루어지며 선택종목에 맞게 시험이 이루어진다. 실기시험은 각 종목에 맞춘 시험이 이루어지며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모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는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합격 후 3년 이내에 9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현장 실습과정 역시 이루어진다. 부산은 부경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 생활체육지도사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생활체육지도사의 전망

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는 더이상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증대를 통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체력100에서 체력측정사로서의 역할도 병행한다. 앞으로 증가하는 일자리에 발맞춰 준비한다면 전문 인력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안전관리사



스포츠 행사(대회)에서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스포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초기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말한다.

☑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2019년 처음으로 자격취득을 시작,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스포츠안전관리사2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첫 시행으로 필기 과정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시험의 일정과 연수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다.

구분	1급		2급	
	2019년	2021년 이후	2019년	2021년 이후
연수시간	2일, 16시간	3일, 24시간 (시험일 별도)	1일, 6시간	1일, 8시간 (시험일 별도)
검정방법	필기, 실기시험	필기, 실기시험	필기시험	필기, 실기시험
문항/시간	필기	80문제/80분	60문제/70분	40문제/40분
	실기	2문제/70분	2문제/50분	-
합격 점수	매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앞으로 자격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스포츠안전관리사의 전망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대회 주최 측과 스포츠안전관리사의 매칭을 통해 스포츠 행사(대회)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경험을 쌓아 스포츠안전관리사로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필기시험은 위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시험이 치러졌다. 합격 조건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 단일과목 40점 이하는 불합격이다. 2020년 시험 일정은 국내 스포츠 행사(대회)의 취소/연기로 자격

스포츠 뉴스



SPORTS NEWS

01

지스타 온라인 진행

온택트(온라인+언택트)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회로 진행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올해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돼 진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온택트(온라인+언택트)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회를 진행한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앞두고 진행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제한적 오프라인 운영 방식은 방역당국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부산 벅스코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현장은 방송 무대와 스튜디오 등 지스타 조직위원회가 직접 제작·운영·관리하는 시설물과 비대면 홍보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 부스는 따로 마련되지 않으며 온라인 BTC를 참여할 경우 현장 무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기회가 제공된다. 참관객 입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방역 당국 지침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SPORTS NEWS

0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공공체육시설은 임시적으로 휴관 조치,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재전환

부산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임시적으로 휴관조치 되었다. 실내집단운동은 지난 8월 21일(금)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조치를 했다. 이후 9월 17일(토)부터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예년보다 2개월 정도 늦게 개막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지난 5월부터 무관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프로야구가 7월 말, 프로축구는 8월 초부터 전체 관중의 최대 30%로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다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관중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스포츠계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3단계 격상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2020. 8. 17. 12시 ~ 8. 31.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 2020. 8. 21. 0시 ~ 8. 31.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 : 2020. 8. 31. ~ 9. 6.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연장 : 2020. 9. 7. ~ 9. 20.
- 방역당국 방역(일부시설 집합제한) : 2020. 9. 10. 15시 이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 : 2020. 9. 21. ~ 9. 27.
- 추후연휴 휴일연장기간 : 2020. 9. 28. ~ 10. 11.

-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일부시설 집합제한 및 실내 공공립시설 운영 중단**
 - 집합금지 :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골라택, 헌팅포차, 직경면역운동관
 - 집합제한(9.10. 15시부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9.17. 15시부터)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동종 업종전체 집합금지 검토.
 - 전체 어린이집 휴원
- 2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집합제한(9.10. 12시 부터)
 - 약원(300인 미만), 오락실, 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결혼식장 등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운영, 거리두기(2m) 준수, 발열체크 철저 등
- 3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예대면 예배만 허용)**
 - 전체 종교시설의 대면 모임·행사, 식사 금지
 - 단, 온라인 예배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 예배 허용
- 4 학교·학원 밀집도 조정**
 - 고교 2/3, 그 외 학교 1/3 등교 인원 조정
- 5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경기 및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
- 6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마동축·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법직 다수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7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근무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1/3 재택근무 실시
 - 전자출퇴근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8 해수욕장 조기 폐장·민간수변공원 폐쇄(8.21. 0시)**
 -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달랑, 임랑해수욕장 등 7개소
 - 편의시설 운영 종료, 방역관리 강화(집합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